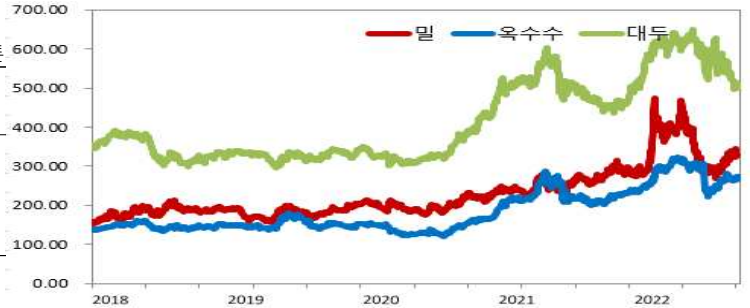


CBOT 밀, 흑해 수출 우려에 상승

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구분	기준일 ('22.10.13)	전일대비	전월평균 ('22.09)	2021 평균
밀	327.84	▼2.1%	314.75	258
옥수수	274.69	-	267.77	225
대두	512.84	▲1.4%	536.40	501
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 (밀: 12월, 옥수수: 12월, 대두: 11월물) 정산가격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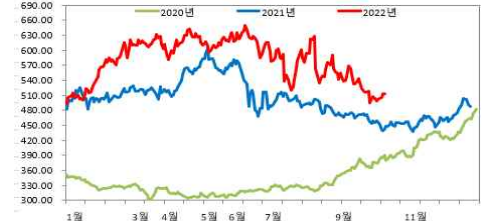
밀 선물시장 시황



옥수수 선물시장 시황



대두 선물시장 시황



시카고선물거래소 밀 선물가격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면서 전일 대비 1.1% 상승했다. 달러의 약세와 주식 시장의 상승이 선물가격 상승을 지지했다. CBOT 12월 연질 적색 겨울 밀(WZ2)은 10센트 상승하여 8.92달러/부셸을 기록했다. 캔자스시티 선물거래소(K.C.)의 12월 경질 적색 밀(KWZ2)은 12.25센트 상승한 9.82달러/부셸, 미네아폴리스 선물시장(MGEX) 12월 봄 밀(MMEZ2)은 11.25센트 상승하여 9.78달러/부셸로 마감했다. 러시아 제네바 유엔 대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 Rosario 곡물 거래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 거래소는 아르헨티나 밀 생산량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. 미국 농무부(USDA)는 금요일에 주간 수출 판매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. 로이터가 조사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밀의 예상 수출 판매량은 20만~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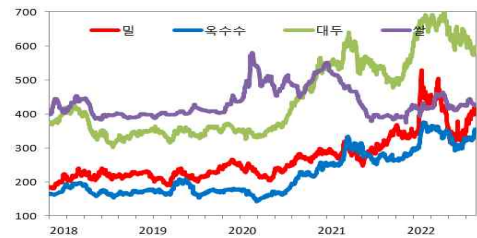
시카고선물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흑해 곡물 수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전일 대비 0.7% 상승했다. CBOT 12월 옥수수(CZ2)는 4.75센트 상승한 6.97달러/부셸을 기록했다. 미국 농무부(USDA)는 금요일에 주간 수출 판매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. 로이터가 조사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예상 수출 판매량은 30만~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시카고선물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은 밀과 옥수수 선물의 상승과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장 초반 하락했던 것이 상쇄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. 세계 시장에서 남미산과 미국산 대두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폭이 제한되었다. CBOT 11월 대두(SX2)는 0.25센트 하락한 13.95달러/부셸, 12월 대두박(SM2)은 3.30달러 하락해 411.00달러/숫톤을 기록한 반면, CBOT 12월 대두유(BO2)는 0.84센트 상승해 66.43센트/파운드로 마감했다. 미국 농무부(USDA)는 금요일에 주간 수출 판매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. 로이터가 조사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대두의 예상 수출 판매량은 60만~14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농무부(USDA)는 민간 수출업자들이 2022/23 마케팅 연도에 중국에 26만 4,000톤, 북특정 다수의 목적지에 24만 2,000톤을 판매했다고 보고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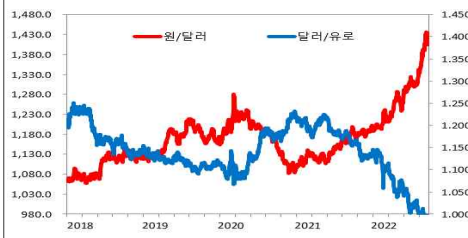
관련동향

13일 국제유가는 미국 중간유분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했고, 경기침체 밀 수요 감소 우려 등은 상승폭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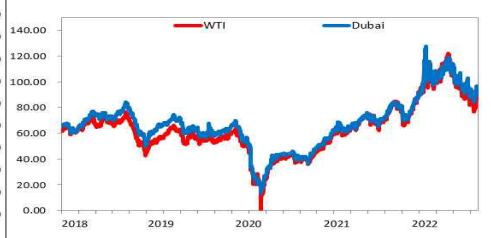
곡물 수출가격 (FOB)



환율



국제유가



구분	곡물수출가격 (FOB)		구분	국제유가			
	기준일	전일대비		기준일	전일대비		
곡물수출가격 (FOB)	밀	398	▼1.7%	환율	원/달러	1,427.0	▼0.2%
	옥수수	354	▲0.6%		달러/유로	0.9776	▲0.7%
	대두	597	▲1.5%	국제유가	WTI	89.11	▲2.1%
	쌀	422	▼0.7%		Dubai	91.19	▼1.9%

1) 밀(US SRW Gulf), 옥수수(US 3YC Gulf), 대두(US Gulf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
2) 기준일은 '22.10.12(수출가격), '22.10.14(환율), '22.10.13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)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